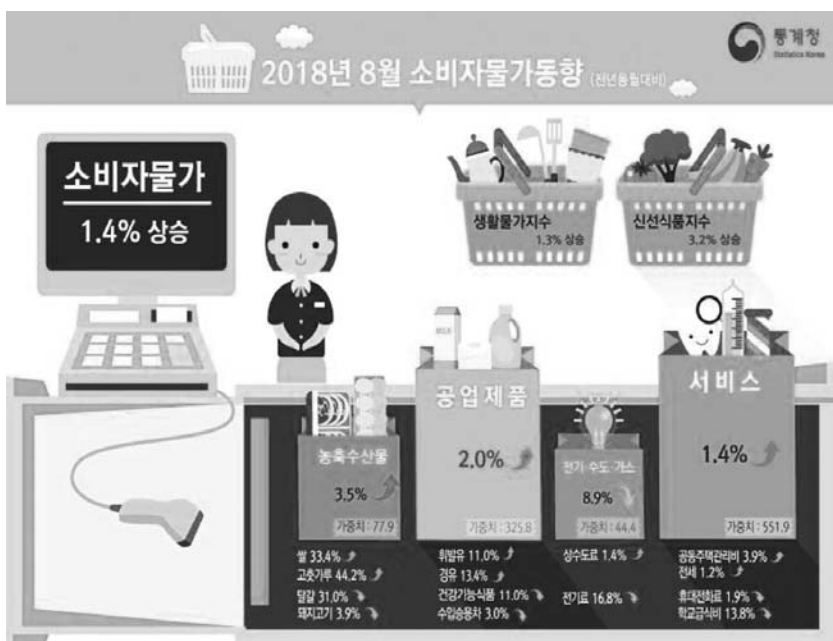


폭염에 채솟값 전월比 30% '급등'



통계청, 소비자물가상승률 11개월째 1%대 유지
농산물, 7.0% 상승...축산물 내리고 수산물 올라
LPG 14.0% ↑, 경유 13.4% ↑, 휘발유 11.0% ↑
7~8월 누진제 한시 완화 전기·수도·가스 8.9% ↓

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한파 피해가 누그러지니 폭염 피해가 발생하면서 다시금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다. 채소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는데 전월과 비교하면 30.0% 뛰었다. 시금치(128.0%), 양배추(85.5%), 배추(71.0%) 등 일부 품목의 전월 대비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폭염이 한반도를 덮친 지난날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소류의 경우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30%에 달해 소비자들의 정바구니 근심을 부쩍 높인 모습이다.

다만 폭염 대응책으로 전기요금 누진제가 한시 완화되며 전체 물가 상승에는 제동이 걸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년 가까이 1%대를 유지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부터 11개월째 1%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1월 1.0% ▲2월 1.4% ▲3월 1.3% ▲4월 1.6% ▲5월 1.5% ▲6월 1.5% ▲7월 1.5% 등으로 최근에는 1% 중반대에서 큰 변화가 없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처럼 장기간 1%대를 기록한 것은 4년여 만이다. 앞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대 물가가 이어진 사례가 있다.

정바구니 물가로 꼽히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 오르는데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9% 오르는데 그쳤다. 2000년 2월(0.8%) 이후 18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신선어개는 5.0% 올랐고 신선채소는 2.3%, 신선과실은 2.9% 상승했다. 폭염 피해에 따라 가격도 단기간에 급등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신선채소 가격이 무려 30.4% 올랐고 신선과실은 9.2% 상승했다.

품목상징별로 보면 전체 상품 물가가 1.3% 상승한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은 3.5% 올랐다.

농산물로 한정하면 7.0% 상승했다.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석 달 만

축산물 가격은 달걀 껍데기 등의 가격이 떨어지며 전년 동월 대비 3.9% 하락했다. 수산물의 경우 오징어 등의 상승세가 이어져 6.0% 올랐다. 오징어 가격은 1.0% 올랐는데 지난 2016년 10월부터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석유류 가격 상승세도 이어졌다. 석유류는 전년 동월 대비 12.0% 올랐는데, 전월(12.5%)에 비해 상승폭이 소폭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LPG(액화석유가스)가 14.0%, 경유가 13.4%, 휘발유가 11.0% 올랐다.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의 물가 상승률은 2.0%로 나타났다.

상승 요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전기·수도·가스 물가는 1년 전보다 8.9% 하락했다. 정부가 폭염에 대응해 7~8월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 인정한 결과다.

전체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1.4%로 나타났다. 집세가 0.5% 오르고 공공서비스가 0.1% 하락했다.

개인서비스는 2.4% 상승했고 외식 물가는 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으로는 생선회 외식 물가가 4.7% 올랐고 구내식당식사는 3.4% 상승했다.

김윤성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8월에는 폭염으로 농축산물 물가가 많이 오른 반면 전기료 인하로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하락세를 보였다"며 "두 가지가 맞물리다보니 소비자물가지수는 7월 1.5%에서 8월 1.4%로 약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약했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교통 부문이 1년 전보다 4.0% 올랐다.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이 밖에는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가 3.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가 3.0% 올랐고 음식 및 숙박도 2.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심수품 물가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물가는 폭염 등 농축수산물의 계절적 상승 압력이 완화되겠으나, 기저효과 등으로 1%대 안정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9월 추석 물가 불안에 대비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민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8월 광주·전남 주식거래량↓·거래대금↑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는 8월 초 무역분쟁 지속에 따른 중국의 증시 급락 영향을 받고 터키발 정치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했다.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시장 거래량 상위종목은 아남전자, 우리종교, 동양철관, 콤팩시스템 순이고 거래대금 상위종목은 삼성전기, 삼성전자, 셀트리온, SK하이닉스 순이다.

코스닥시장 거래량 상위종목은 사회건설, 데이터이, 에스마크 순이고 거래대금 상위종목은 데이터이, 신라전, 에이치엘비 순으로 높았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주식 거래량은 전월보다 감소하고 거래대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주식 거래량은 전월 3억8042만주에서 3억4381만주로 3661만주(9.62%) 감소했다.

반면 거래대금은 2조8419억원에서 2조8707억원으로 288억원(1.01%)이 증가했다.

광주·전남지역 투자자의 전국 대비 거래량은 1.69%, 거래대금



“운동하면 보험료 할인 해준다?” ‘건강증진형 보험’ 속속 등장

최근 건강증진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ABI생명(구 AIA생명)은 국내 헬스케어 1위 캐시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개발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웰니스(Wellness)도 선보였다.

신한생명은 당뇨측정과 관리프로그램 앱을 선보였다. 이 앱은 혈당 측정시간을 예약하고 혈당추이를 분석하는 등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매년 3회 이상 앱에 혈당수치를 주게하거나 특약보험료를 최대 1.0%할인해준다.

오렌지리프트(구 ING생명)는 업계 최초로 체력인증을 연계한 건강증진형 보험을 출시했다. 이는 '국민체력100' 인증 등급과 걷기운동량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50만원 환급해주는 상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건강형 증진 상품이 보험업계 전반에서 개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부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상품개발이 추진 중"이라며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중시하는 트렌드에 맞춰 이 같은 상품개발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생명보험사들은 건강

대출금 5일 연체하면 신용점수 하락...연체정보 1년간 등록

단기연체정보 활용기간 1년으로 단축 제2금융권 대출금으로 신용점수 하락

4일 금융당국의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출금을 상환기한에서 5영업일이 지난 때까지 갚지 않으면 이 사실이 신용조회회사(CB)에 '단기연체정보'로 넘어간다. 만약 3개월 장기연체했다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다.

신용정보회사는 단기연체정보를 연체상환일로부터 3년간 활용한다. 하지만 오는 12월부터는 1년으로

#1. A씨는 이달 상환해야 할 대출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못했다. 3영업일쯤 지났을 때 은행에서 2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다. 부랴부랴 뒤늦게 연체금을 납부했지만 이미 연체정보가 넘어간 이후였다. 즉시 상환했지만 이미 연체정보가 넘어가 신용점수가 하락한 상태였다.

단축된다.

이들 정보는 다른 금융회사 및 신용조회회사와 공유돼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된다. 신용점수가 낮은 경우 높은 대출 금리를 요구받거나 심하면 대출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연체

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한다. 연체정보가 한 번 등록되면 바로 상환하더라도 연체 정보가 일정기간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된다고 주의를 요구한다.

금융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대출금 연체정보 등록 전 등록예정일과

이를 어졌을 때 받을 불이익을 공지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상환하면 신용점수 하락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채무자가 많다. 5영업일이 지났던 이후에 상환하더라도 신용점수가 하락된다"고 강조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으면 연체하지 않아도 대출받은 사실만으로도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연체율이 높은 곳일수록 더 큰 폭 하락할 수 있다.

금융원 관계자는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채무자들이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며 "채무자도 신용점수 하락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출 계약 시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